

전개공, 충청·호남권 지방공사와 구분회계제도 개선 협의 워크숍

28일부터 이틀간 모항 하나루서... 문제점 개선·활용 방안 집중 논의

구분회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개선방안은 향후 행정안전부에 건의

전북개발공사는 오는 28일~29일 양일간 충청·호남 지방공사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구분회계제도 운영 및 개선 방안 협의 워크숍'이 전북 부안군에 있는 모항하나루 가족호텔에서 열린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2017년부터 도입된 구분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북개발공사 등 충청·호남권 6개 지방공사가 구분회계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20여명의 지방공사 담당자 및 회계법인이 참가하는 이번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구분회계제도 문제점 개선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구분회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도출된 개선방안은 향후 행정안전부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구분회계제도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정보 분석을 통해 재무관리 역량 강

화 및 재무건전성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년초 지방공사에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 사업 유형의 다양화 및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분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사업부문별 자산, 부채의 효율적 관리와 손익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재무건전성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재정개혁특위, 중부세 개편 4가지 시나리오 공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종합 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담직한 부동산세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 대안을 내놨다.

개편안에는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5%로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 첫 번째 방안과 두 번째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면서 세율은 2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이밖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으로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세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다.

재정개혁특별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주 52시간 시대' 1년 유예받는 유통업계 '여유만만'

내달 1일부터 근로시간 줄어들어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특례업종서 제외 "시행착오 줄여줄 시스템 만들 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어들지만, 유통업계는 한걸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대부분 유통업계 기업들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1년 유예기간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계 대부분 기업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다. 유통업계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것이다. 반면 다수 제조업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그대로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맞춰야 한다.

유통업계는 한걸 여유로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미 야근 등을 상

당히 줄인 상태라 현재 근무체제로도 문제될 것은 없는데다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시행착오를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야근을 모두 합쳐 주 52시간을 넘기면 안 되니까 모든 기업이 고민이 들 것"이라며 "우리도 야근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좀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기업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마트 관계자도 "이미 신세계 그룹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

장 실시하는 것보다 실수를 줄이고 제도를 공고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낫다"고 말했다.

당장 주 52시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CU 관계자는 "당장 적용대상 아니라고 이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형태를 시행을 하고 있다"며 "본격 시행 때까지 시행착오를 줄여, 최대한 잘 정착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계 역시도 위메프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가운데 1년 유예 기간이 상당히 소중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머커스 업체 관계자는 "아직 회사에서 구체적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방침이 나온 것은 없다"며 "가장 문제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인건비를 보전해줄 수 있는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본격 적용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과 인건비 사이의 문제를 고민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화금융사기 조기 발견 80대 어르신 재산 지켰다

익산우체국 영업과 최은희 주무관



경찰관은 최근 익산지역 전화금융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더 이상 지급요청을 하지 않았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익산우체국 영업과 최은희 주무관이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응대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2천 만 원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우정청에 따르면 고객 김 모(88) 할아버지가 익산우체국을 방문하여 경찰서 앞에서 아들에게 집 전세자금을 주기로 했다면서 우체국 정기예금 2000만원을 중도 해약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모 할아버지는 정기예금 2천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준다고 말하고 또한, 경찰서에서 누군 만나기로 하였다 등 황실수술, 최은희 주무관이 아들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연락처를 모른다 말하는 등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임을 확인하게 됐다.

이때, 우체국 밖으로 나가 어딘가에 전화통화 하던 김 모 할아버지를 주의깊게 살피던 최은희 주무관은 최영준 영업과장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사체에 대해 김 모 할아버지께 설명을 하고 끝까지 설득, 익산경찰서 지능팀에 인계

김 모 할아버지는 정기에금 2천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준다고 말하고 또한, 경찰서에서 누군 만나기로 하였다 등 황실수술, 최은희 주무관이 아들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연락처를 모른다 말하는 등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임을 확인하게 됐다.

한편, 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는 20일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최은희 주무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영태기자

전북은행, 다문화가정 초청 전주 한옥마을 투어 행사

JB금융그룹 전북은행과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2일 전주한옥마을에서 진안군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30명을 초청해 2018 제4회 다문화가정 다정다감 문화교실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한국 사회에 많은 애정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진안군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은 한복을 입고 경기전 풍납문, 전동성당 등 전주한옥마을의 명소를 둘러 쿼즈를 풀어나가는 미션 투어에 참여했고, 전주비빔밥을 먹으며 의미 있는 점심시간을 보냈다.

특히 체험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주초코파이 만들기 활동은 참가자들이 준비된 재료로 자신의 취향에 따라 만든 뒤 완성품은 가족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응웬티 한씨는 "재미있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전북은행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한국 생활을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은행 노시현 사회공헌 부장은 "이번 문화교실을 통해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다문화 관련 사업들을 지속해서 펼쳐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현대자동차 구매고객 금리우대 이벤트 실시



(비대면 가입 시)로 제출하면 우대금리(연0.2%)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농협과 (주)현대자동차 간 농산물 상생마케팅 MOU를 체결하여 매년 농산물 소비 촉진을 지원함에 따라 현대자동차 구매고객

에 대한 우대혜택을 제공하여 두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NH농협은행 김장근 전북본부장은 "현대자동차 이용고객 덕분에 농산물 상생마케팅이 가능하게 되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이벤트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으로 고객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NH스마트뱅킹 이벤트 페이지와 농협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영업점 및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